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공고

서울교회는 1991년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강남노회 소속 교회로 교육과 전도와 구제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실 위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1. 지원자격

- ① 학력 : 본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교 M. Div. 과정을 졸업한 분.
- ② 경력 : 목사안수 후 10년 이상의 목회(신학대학교수 경력 포함) 경력이 있는 분.
- ③ 대한민국 국적 기혼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과 사회법에 무흠한 분.

2. 청빙절차

- 1차 : 제출서류 심사.
2차 : 추가제출 서류심사 및 면접 ③ 3차 : 초청 설교

3. 지원자 1차 제출서류

- ① 지원서(본교회 소정양식). 1부.
- ② 자기소개서(배우자 관련 내용 포함 / 자유양식). 1부.
- ③ 추천서(본 교단소속 목사, 장로 각 1인 / 자유양식). 각 1부.
- ④ 학부 및 신대원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최종 학위증명서. 각 1부.
- ⑤ 최초 목사안수증명서 및 교단(노회) 소속 증명서. 각 1부.
- ⑥ 총회연금 계속납입증명서. 1부.
- ⑦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20분 이내) USB 파일과 동영상의 설교 요약문(자유양식). 1부.
- ⑧ 현재 시무하는 교회주보(최근 4주분). 각 1부.
- 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본인, 배우자), (소정양식). 1부.

4. 심사 대상자 2차 및 3차 제출서류

- 1차 서류심사 통과한 분께 2차 및 3차 추가 제출자료 등을 개별 안내합니다.

5. 유의사항

- ① 1차 제출서류 원본문서(인쇄물)와 제출서류의 스캔본, 설교 동영상 파일을 저장한 USB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합니다.
*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제출처 :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서울교회 청빙위원회 귀중
* 봉투 겉면에 '위임목사 청빙서류 재중' 반드시 표기
* 문의전화 : 02-558-1106(서울교회 사무국)
- ②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청빙관련 자료로만 사용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고, 청빙절차 종료 후 일괄 폐기됩니다.
- ③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④ 지원서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 (<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⑤ 전형별 심사결과는 선정된 분에게만 개별 통지하며,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최종 결정 후에도 청빙이 취소됩니다.
* 본 교회는 (목사, 장로 안식년 및 재시무에 관한 정관)이 있습니다.

주후 2024년 9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청빙위원회

기도가 먼저라!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 청빙위원 선정

서약식 : 오늘 찬양예배 시

당회는 지난 8월 11일(주일) 임시당회를 열고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주일) 오후 12시 20분 첫 모임 시 설명회와 서약서를 받았으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서약식을 갖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청빙위원회는 지원하신 분들을 심사하여 여섯 명을 정하는 추천위원회와 추천된 여섯 명 중 세명으로 압축하는 심층심사를 담당하는 선정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기도로써 시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기도로써 마치는데 적극 협력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양 위원회가 조사한 후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나 그들과의 접촉한 내용 등은 청빙업무 종료 시까지 최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을 포함하여 청빙업무 관계자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명단과 서약서 내용은 3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위해 그리고 청빙 과정이 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과정이 되기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큰 슬픔과 큰 기쁨

행 8:1 - 8



손달익 위임목사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 예루살렘 교회에는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테반은 예루살렘에서 감동 넘치는 설교를 하며 유대인들을 향하여 목이 곤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며 의인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과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은 스테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스테반을 장사한 후 큰 슬픔

에 잠겼습니다.

1. 흠어진 사람들

스데반 집사의 죽음 후 사도들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야만적인 박해의 칼을 피해 여러 땅으로 분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성도들은 '흠어진 사람들'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약 1: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흠어진 나그네"(벧전 1:1)라고 했습니다. 흠어진 사람들의 분산된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본문 1절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흠어진 것을 말했지만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흠어진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서 지금의 터키 지방까지 분산된 지역이 확장되었습니다. 롬 16장 말씀에 따르면 이미 바울의 많은 지인들이 로마에 모여들어 로마교회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 역시 흠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4절)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면 그들은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입니다. 박해에 직면했고 추격해 오는 유대인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숨가쁘고 공포에 찬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도들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테반의 뒤를 이어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흠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교회 설립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나 흠어진 사람들이나 지난 슬픔에 잠겨 살거나 위축되거나 혼미하지 않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전력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흠으신 장소를 내 선교지로 알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2.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다

본문에는 집사 빌립의 전도행적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5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방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를 특정하여 기록한 이유는 빌립의 전도가 그만큼 획기적이고 파격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역사 동안 악연을 이어왔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의 강압통치 선언에 실망한 여러 지파들이 다윗 왕조를 거부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한 후 사마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건국했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긴 역사의 시간 동안 악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을 이단으로 여겼고 마치 이방인들처럼 간주했습니다. BC721년 북왕국이 앗수르에게 망

하고 앗수르의 이민정책에 따라 그들의 혼혈이 가속화 되면서 그들을 향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의 경멸은 더 심해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힘쓸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돕겠다고 했으나 유다 사람들이 냉정히 거절하면서 양측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 불능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긴 세월을 그렇게 지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 사람을 더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금단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감하고 담대한 집사 빌립은 이 경계를 넘어갑니다. 버려진 사람들이 살고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우울하고 외면당하는 소외된 사람들의 도시 사마리아에 그는 담대하게 혈혈단신으로 도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빌립이 아는 사람도 안내자도 동역자도 없었습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간 빌립은 오직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일들, 문화, 혈통, 오랜 역사 등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마리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단순한 진리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놀라웠

습니다.(6절) 생면부지의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한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이시다'라는 타협 없는 이 말씀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이시다'라는 타협 없는 이 말씀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3. 기쁨이 찾아온 도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8절). 열등감과 분노와 무기력과 삶의 고달픔으로 우울함과 절망감이 가득했던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 도시에 기쁨이 찾아온 것은 예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인간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전도서에는 솔로몬이 허무를 탄식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누려보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허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허무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를 고백하면서 "일의 결구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13)고 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 결론이었습니다.

이 우울한 도시 사마리아를 큰 기쁨이 넘치도록 만든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 역시도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테반을 장례하고 큰 슬픔 가운데 가택 수색을 당하고 끌려가고 옥에 넘겨졌습니다. 다행으로 피하여 화를 면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이별하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마리아로 가고 가이 사라로 가고 갈릴리로 가고 땅 끝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외쳤고, 그러자 그곳에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세상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죽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후 4:12).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것처럼 희생했더니 많은 사람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큰 슬픔과 아픔을 겪어낸 성도들이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면 큰 기쁨의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모두 슬픔과 아픔은 가슴에 품고 예수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 선정하다

추천위원			선정위원		
이강인 장로 (추천위원장)			최형열 장로 (선정위원장)		
사무장로	유충기 장로	노제현 장로	사무장로	차영도 장로(서기)	서은석 장로
	김혜연 장로	이민호 장로(서기)		김광태 장로	김승록 장로
	백도환 장로			오윤걸 장로	
안수집사	옥종호 안수집사	장상국 안수집사	안수집사	예완식 안수집사	소훈 안수집사
사무권사	김정제 권사	정윤희 권사(회계)	사무권사	김선영 권사	박민숙 권사(회계)
집사	최근우 집사	노애리 집사	집사	채승호 집사	양세정 집사
청년	이요한		청년	이신영 집사	

* 청빙위원회는 추천위원회와 선정위원회로 구성됩니다.

* 각 위원회의 구성은 사무, 은퇴장로의 가족, 위원별 가족 관계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 직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법적인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대하여, 최대한 중복 참여 안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청빙위원들
▼ 서약서 작성전 교육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위원 서약서

본인은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후보(추천,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나는 소속 위원회 모임 시 기도로써 시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기도로써 마치는데 적극 협력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나는 양 위원회가 조사한 후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나 그들과의 접촉한 내용 등은 청빙업무 종료 시까지 최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을 포함하여 청빙업무 관계자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청빙과 관련하여 받은 외압, 청탁 등의 내용은 지체 없이 당회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 나는 취득한 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후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주거나 다른 후보자와 그 관계자, 제3자에게 유출시킬 시는 소속 위원회 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함은 물론 문제가 될 시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허락 없이 후보자 및 후보 관계자들을 개별 접촉하거나 문자, 전화, 카톡 등 사적 연락을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소속 위원회가 후보자 6명 선출을, 그 후 후보자 3명 선출을 최종 완료하는 시점까지 그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다하겠습니다.
- 나는 소속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지며, 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당 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소속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청빙 진행사항을 교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양 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발표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8월 25일
위 서약자 : (서명)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 욥기



장석남 목사
(욥기반)

성경의 보석 같은 책, 욥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욥기는 단순히 고난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순례자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망과 위로의 책"입니다. 날마다 형통과 고난의 합주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걸어가는 천성을 향한 순례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에 대해 가르칩니다.

욥기반에서는 ESV 성경공부 시리즈 욥기 교재를 가지고 8주 동안 함께 공부하며,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고난과 악의 문제의 의미와 해결책 /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 지혜와 우정의 참된 의미 / 고난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뭉소 해결하신 주님의 사랑 /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의 조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10)

욥기 성경반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욥의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매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싶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욥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을 소원합니다.

복음적 정체성의 구현, 고린도전서



최종국 목사
(고린도전서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편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문화

경제, 정치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종합선물 세트처럼 들어있었습니다.

2000년 전 그들뿐만 아니라 현재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학교, 회사, 교회, 가정에서 가치관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갈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며, 복음의 가치관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적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8주 동안 ESV 성경공부 시리즈 고린도전서를 통해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 담긴 이들이 겪은 문제와 바울의 권면들을 살펴보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복음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살롬대학으로 초대합니다



박미라 전도사
(살롬대학 지도)

살롬대학 싱글벙글!! 살롬대학 감사감사!! 살롬대학에서는 살롬대학 싱글벙글!! 살롬대학 감사감사!!를 외치며 노년의 삶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 넘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적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노년을 영

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롬대학 목표는 첫째, 평생교육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천국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 둘째, 기능 및 역할 상실감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한다. 셋째, 급변하는 정보 사회에서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넷째, 노년에 적합한 봉사 영역을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업은 9월 5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10주 동안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경건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전체활동으로 추석을 맞아 송편만들기를

하며 나들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신을 새롭게 합니다. 종강 시 발표회를 실시하여 반별활동을 통하여 배운 것을 서로 나누며 교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가을학기 2개 반이 신설되어 총 7개 반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 위십 반, 손뜨개 반, 보드게임 반, 탁구 반, 바둑 반. ※신설-성악 반, 소풍 반
- * 9월 5일-11월 7일 (매주 목요일, 10주간)
- * 웨스트민스터홀(101호)
- * 소정의 입학원서 - 사무국 접수

2024 바자를 준비하며



김영희 안수집사(바자 총괄지원)

2024 바자가 오늘 먹거리를 중심으로 미리바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8일까지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바자는 10월 18일(금)-19일(토) 2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금번 바자에는 외부업체의 입점을 최소화 하고 가능한 우리 교회 개인사업하시는 성도님의 물건을 집

중적으로 판매하여 서울교회 성도뿐 아니라 교회 주변의 믿지 않는 이웃과 함께하며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행사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인 기업인 홍보책자를 바자 기간내 제작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는 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교회 성도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번에 제작되는 기업 홍보책자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셔서, 바자 행사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영업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자영업 성도님들은 교구 간사께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너무 힘든 시기에 자영업하시는 서울교회 실업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20강 : 사도신경 – 성자 하나님 (5)

45문 :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써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런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매우 사도신조를 통해서 입으로는 “몸의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죽은 자들이 몸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기보다는 영혼불멸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혼불멸과 몸의 부활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의 일원론적 사고와 헬라인들의 이원론적 사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믿는 헬라적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물든 고린도교회의 일부 신자들도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

매가 되셨음을 강조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12-58.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은 영혼불멸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이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46문 :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승천했던 두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의 이야기 창세기 5: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고 다른 하나는 열왕기하에 기록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21,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낯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은 같은 현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표현을 사용하여 차이를 설명하면,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은 우리의 유익과 상관없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7 (개역개정).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또 다른 이유는 장차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의 대상인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셨는데도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떠올려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비록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이유는 두 번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 (개역개정).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 곧 심판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가리키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에서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죽은 자들, 곧 인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심판 때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영혼이 살아 있는 자들과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영혼이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47문 :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 그리스도는 참인간이고 참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실 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b (개역개정).

이 약속을 문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인성과 신성으로 구분합니다. 인성으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나, 신성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면, 고대 교회의 기독교

논쟁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인성과 신성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칼케돈 신조에서는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48문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는 대신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설명을 보면 서양인들의 정서와 한국인들의 정서가 다르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시야에서 멀어지면 생각에서도 멀어진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준 사람은 그 사람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기에 잠시도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과 함께 마음도 주셨고, 우리를 그 분의 마음 속에 간직하고 계시기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남선교회 모범선교회상 수상

지난 8월 28일(수) 흥천 소재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남선교회전국연합회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서울교회 남선교회가 모범선교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70인전도대 9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9.1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9.4	도르카, 루디아, 뵈비
9.8	자원자	바울, 엘리야	9.11	마리아
9.15	자원자	모세	9.18	추석
9.22	방학	이삭	9.25	리브가
9.29	방학	스데반회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맥체인 성경통독			
1년 1독			삼상26	고전7	겔5	시42,43
9월2일	월	겔 24-27	삼상27	고전8	겔6	시44
9월3일	화	겔 28-30	삼상28	고전9	겔7	시45
9월4일	수	겔 31-33	삼상29,3	고전10	겔8	시46,47
9월5일	목	겔 34-36	삼상31	고전11	겔9	시48
9월6일	금	겔 37-39	삼하1	고전12	겔10	시49
9월7일	토	겔 40-42	삼하2	고전13	겔11	시50
9월8일	주일	겔 43-46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9월이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이웃을 향하여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섬김과 나눔의 실천이 더 풍성하게 하소서.
- 2024 가을 성경대학·살롬대학·열린프로그램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고, 사랑의 바자의 준비 과정을 통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 남북이 복음 위에 통일된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전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과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 부목사
장석남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는 성선혜
- ◇ 협동목사
양정호

◇ 손달익 위임목사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602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